

친구 친지 방문 호스칭을 통한 장소감 형성* - 베트남 이주 한인을 중심으로 -

장해리**, 이준영***, 최서희****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이주민의 친구 및 친지 방문(Visiting Friends and Relatives, VFR) 호스칭이 이주 지역의 장소감 형성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주민이 이주 국가와 지역에서 형성하는 장소감에 집중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VFR 관광 호스칭을 통해서 형성되는 장소감을 탐구하였다. 베트남 호찌민에 거주 중인 한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이주민 호스트의 장소감을 중심으로 친구 및 친지 방문 호스칭에 따른 감정 및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개별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시공간적 요인과 동질감과 같은 감정, 편리함과 같은 경험이 이주민의 장소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VFR 관광 호스칭을 통한 장소감 형성은 공간, 감정, 경험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이주민은 호스칭을 위해 의도적으로 다양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는 새로운 공간 인식으로 이어지며, 이주민들의 소비 및 여가 공간의 확장의 계기가 된다. VFR 관광객을 통해 느낀 '집'과 '멀리', 이주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과 같은 감정적 부분 또한 이주민의 장소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VFR 관광 호스칭을 통한 이주 지역에 대한 긍정적 기억 형성, 일상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 거주 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같은 경험들 역시 이주민의 장소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기존 이주민 연구에서 개별적인 키워드로 다루어지던 이주민의 장소감과 VFR 관광 호스칭 경험을 복합적으로 탐구함으로써 VFR과 장소감을 복합적으로

* 본 논문은 장해리의 석사학위논문인 「해외 이주민의 친구 및 친척 방문 관광 호스칭을 통한 장소감 형성: 베트남 호찌민시를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 제1저자,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석사(Maste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 Hee University)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Ph.D. Candidate,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 Hee University)(공동저자)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 Hee University)

8 문화콘텐츠연구 제28호

연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한인으로 VFR 연구의 지역적 맥락을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제어: 베트남, 호찌민, 이주민, 친구 및 친지 방문(VFR), 호스팅, 장소감, '집'과 '멀리'(home and away)

I. 서론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이주가 증가하면서 여러 행위자들의 이동성이 확대되었다. 유엔(UN)에서 발간한 2020 세계 이주 보고서(World Migration Report 2020)에 따르면 2019년 국제 이주자 수는 2억 7천 2백만 명으로,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한다.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의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초국적 이주 행위자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특히 이들이 구성하는 민족 집단의 공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이주민들은 공간을 기반으로 그들의 특성이 반영된 활동을 전개한다.¹⁾ 이러한 배경에서 이주민들이 형성하는 공간과 그들의 장소 인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이해는 공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Tuan은 공간이 개인에게 완전히 익숙해졌을 때, 공간은 장소로 변하며, 이러한 변화에는 몸으로 체득한 경험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는 인지적 경험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²⁾ 이주민들도 마찬가지이며, 이 과정은 이들의 장소감(sense of place)형성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³⁾ 장소감 형성에 따른 이주민들의 생활 행태 변화와 양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장소감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장소감이 형성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해외 이주민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장소감 형성을 관광의 맥락, 구체적으로 친구 및 친지 방문(Visiting Friends and Relatives, VFR)의 맥락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기존의 VFR 연구는 이것의 사회, 경

1) 김수정·이영민, 「초국가적 경제공간으로서 다민족 비즈니스의 형성과 이주자집단의 사회공간적 관계」, 『문화역사지리』 제29권(제2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7, 61-77쪽.

2) Tuan, Y. F.,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구동희·심승희,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3) Gholamhosseini, R., D. Pojani, I. Mateo Babiano, L. Johnson and J. Minnery, "The place of public space in the lives of Middle Eastern women migrants in Australia", *Journal of Urban Design* 24(2), 2019, pp. 269-289.

제적 효과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VFR 호스트에 대한 연구는 전체 VFR 연구의 21%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호스트 경향과 빈도, 호스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인적 사항, 호스트 활동과 소비 패턴과 같은 연구가 대부분이다.⁴⁾ 해외 이주자의 이주 지역에 대한 장소감 형성 과정을 VFR 맥락에서 본 연구 또한 많지 않았으며, 특히 VFR 관광객을 호스팅하면서 장소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연구도 드물었다. 이들 호스트의 ‘집’과 ‘멀리’ 라는 감정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장소감 형성에 작용하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주민의 장소감 형성과 VFR이라는 개별적 항목으로 연구되어 오던 두 개의 키워드를 결합하여 이주민의 장소감 형성 과정에 VFR 관광 호스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주민들이 VFR 관광객들을 통해서 어떤 ‘집’과 ‘멀리’의 감정을 느끼고 이에 따라 장소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주민들은 이주 국가에서 고향의 모습을 찾거나 고향의 가족 및 친구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집’을 느낀다.⁵⁾ 반면 ‘멀리’는 ‘집’에서 물리적으로 거리감을 둔 상태에서 ‘집’과의 유대를 확인하고 부재를 느끼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이 ‘집’을 정의할 수 있게 하는 행위이다.⁶⁾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VFR 호스팅 경험에서 느낄 수 있는 ‘집’과 ‘멀리’에 대해 탐색하여 이주민의 이주 국가에 대한 장소감 형성에 ‘집’과 ‘멀리’에

4) Griffin, T., “Research note: a content analysis of articles on visiting friends and relatives tourism, 1990–2010”, *Journal of Hospitality Marketing & Management* 22(7), 2013a, pp. 781–802.

5) White, N. R. and P. B. White, “Home and away: tourists in a connected world”, *Annals of Tourism Research* 34(1), 2007, pp. 88–104.; Petridou, E., “The taste of home”, *Home possessions*, Berg, 2001, pp. 87–104.; Ashtar, L., A. Shani and N. Urieli, “Blending ‘home’ and ‘away’: young Israeli migrants as VFR travelers”, *Tourism Geographies* 19(4), 2016, pp. 658–672.

6) Case, D., “Contributions of journeys away to the definition of home: An empirical study of a dialectical proces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6(1), 1996, pp. 1–15.

대한 감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이주민의 장소감은 어떻게 형성되며 그 과정에서 느낀 ‘집’과 ‘멀리’는 어떠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VFR 호스칭을 통한 이주 지역의 새로운 공간 탐색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며, ‘집’과 ‘멀리’의 감정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장소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문헌연구

1. 이주민의 장소감

장소감(感) 혹은 장소성(性)으로 번역되는 ‘sense of place’는 자신과 장소 사이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정서적 관계를 말한다.⁷⁾ 이주민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공간에 발을 들이게 되며,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과 주관적 인식을 통해 그 공간을 ‘장소’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며 장소감(sense of place)을 형성한다.⁸⁾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이주 지역에 대한 감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므로 장소감(感)을 사용한다.

Tuan은 『공간과 장소』에서 공간이 개인의 경험을 통해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장소로 변모한다고 하였다.⁹⁾ 공간이 무엇을 통해 장소가 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Allen과 Steele은 환경과 인간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둔 반면¹⁰⁾

7) Gregory, D., R. Johnston, G. Pratt, M. Watts and S. Whatmore,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John Wiley & Sons, 2011.

8) Tuan, Y. F., *ibid.*

9) *ibid.*

10) Allen, B., “Regional studies in American folklore scholarship”, *Sense of place: American regional cultures*, 1990, pp. 1-13.; Steele, F., *The sense of place*, CBI Publishing Company, 1981.

Relph와 Tuan은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¹¹⁾ 장소감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하다. Steele이 정의한 장소감은 “특정한 물리적, 사회적 소환경(setting)에 대한 개인(심적 요인)의 특별한 경험으로 인해 소환경에 대하여 개인이 보이는 반응 패턴”¹²⁾이며, Relph는 “소환경, 장소와 관련된 경험, 장소의 의미가 얽혀서 구현되는 것”을 장소감이라 하였다.¹³⁾ 또한 Allen은 “어떠한 사람의 물리적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을 장소감이라 정의하였다.¹⁴⁾

이주민은 이주 국가에서 자신의 감각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구성한 현실을 바탕으로 이주 지역을 공간에서 장소로 인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장소에 대한 기억 및 감정이 형성된다. 이주민의 이주지에 대한 애착은 현지 언어 습득과 같은 문화적 통합과 지역민들과의 상호작용 같은 사회적 통합, 개인적 애정과 같은 감정적 통합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다.¹⁵⁾

이주민은 목적지 지역의 문화에 적응함과 동시에 이주 지역 내의 특정 공간 혹은 일상 공간을 장소화함으로써 장소감을 형성한다. 이주민들의 장소감은 이주 지역과의 상호작용 및 이주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형성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주 국가에서 고향의 느낌을 찾으면서 형성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장소화된 공간들은 여가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고 본국에서 하던 일상적인 행위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본국

11) Relph, E.,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1976.; Tuan, Y. F., “Place: an experiential perspective”, *Geographical Review* 165(2), 1975, pp. 151-165.

12) Steele, F., *ibid.*

13) Relph, E., “Geographical experiences and being-in-the-world: the phenomenological origins of geography”, *Dwelling, place and environment*, Springer, 1985, pp. 15-31.

14) Allen, B., *ibid.*; 이정화, 「수용자 문화가 장소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구 지리환경교육)』 제13권(제1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5, 97-123쪽.

15) Rother, N., “Better integrated due to a German partner?: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the integration of foreigners in intra-and inter-ethnic partnerships in Germany”, *OBETS,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N. 1 (junio 2008)*, 2008, pp. 21-44.

으로 가져와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¹⁶⁾ 이러한 과정에서 같은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 공간에 모이다 보면 그들의 특성이 공간에 재현된다. 이러한 공간은 이주민들이 감정적 애착을 형성하며 장소감을 형성하는 공간이 된다.¹⁷⁾

이주민의 장소와 장소감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들은 이들이 목적지에 정착하고 적응하면서 얼마나 목적지 문화와 사회에 녹아들어 어떻게 장소감을 형성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많은 한국 내 외국인주민의 특성상¹⁸⁾ 한국 내 이주민에 관한 연구는 이주민들이 형성한 집단 거주지, 장소 재구성 등을 주제로 얼마나 목적지 문화와 사회에 녹아들고 어떤 장소감을 느끼는가에 대해 진행되었다.¹⁹⁾ 오히려 이주민을 하나의 주체로 인식하여 이들이 어떤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장소감을 형성하는지, 장소감 형성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이 이주 공간에서 어떻게 장소를 형성하여 이주 국가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지와 같은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2. ‘집’과 ‘멀리’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니지만 고향의 감정을 느끼는 곳에 대해 사람들은 보통 home away from home, 즉 제2의 고향이라 부른다. 이주민들

-
- 16) Adams, J. D., “Theorizing a sense of place in a transnational community”,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s* 23(3), 2013, pp. 43–65.
- 17) Mazumdar, S., S. Mazumdar, F. Docuyanan and C. M. McLaughlin, “Creating a sense of place: the Vietnamese–Americans and Little Saig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0(4), 2000, pp. 319–333.
- 18) 행정안전부,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Id=80781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 19) 이영민·이은하·이화용, 「서울시 중국인 이주자 집단의 거주지 특성과 장소화 연구 – 조선족과 한족(漢族)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7권(제2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14, 15–31쪽. 이용균, 「이주자의 장소 점유와 주변화 담론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6권(제2호), 한국경제지리학회, 2013, 218–232쪽.

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들이 느끼는 ‘집(home)’과 ‘멀리(being away)’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정, 가족, 집의 의미가 아닌 감정적, 물리적으로 편안함과 안녕을 느끼며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공간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집’은 주거의 과정과 더불어 사회적, 감정적 관계를 포함하는 개인적인 ‘장소’이다.²⁰⁾ 반대로 ‘멀리’는 특정 장소 혹은 관계로부터 거리감 혹은 부재를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여행을 가는 행위가 대표적이다.²¹⁾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속감을 찾기 위해 ‘집’을 탐색하며,²²⁾ 이를 위해 고향을 방문하여 가족, 친구,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지속, 혹은 그리움을 확인하거나,²³⁾ 가족이나 친구들을 초대하여 호스트의 입장에서 VFR 관광객을 통해 ‘집’을 느끼기도 한다.²⁴⁾ 이러한 ‘집’의 감정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또한 느낄 수 있는데, 특히 VFR 관광객은 외국인라는 낯선 공간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지인의 만남과 친숙한 문화가 녹아 있는 지인의 생활 공간을 마주함으로써 ‘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²⁵⁾

해외 이주를 경험하는 이주민들은 모두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롭고 낯선 공간인 이주 목적지 국가로의 이동을 경험하며, 이 때 ‘멀리’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Case는 ‘멀리’를 ‘집’에서 떨어져 지내는 경험을 통해 ‘집’과의 유대를 확인하고 부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며 개인이 ‘집’을 정의할 수

20) White, N. R. and P. B. White, *ibid.*

21) *ibid.*

22) Ahmed, S., “Home and away: narratives of migration and estran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2(3), 1999, pp. 329-347.

23) Ashtar, L., A. Shani and N. Uriely, *ibid.*

24) Griffin, T., “A paradigmatic discussion for the study of immigrant hosts”, *Current Issues in Tourism* 17(6), 2014, pp. 487-498.; Janta, H., S. A. Cohen and A. M. Williams, “Rethinking visiting friends and Relatives mobilities”, *Population, Space and Place* 21(7), 2015, pp. 585-598.; Petridou, E., *ibid.*

25) Shani, A., “The VFR experience: ‘home’ away from home?”, *Current Issues in Tourism* 16(1), 2013, pp. 1-15.; Uriely, N., ““Home” and “away” in VFR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7(3), 2010, pp. 854-857.

있게 해 주는 행위라고 하였다.²⁶⁾ Alsop은 ‘집’은 유년시절부터 형성된 심리적으로 편안하며 익숙함을 느끼는 공간이며, ‘멀리’는 반대로 그러한 장소에서 떠나 향수를 느끼고 그리워하는 것이라 설명했다.²⁷⁾ 많은 연구들이 ‘집’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활용하여 정의를 내리지만 ‘멀리’는 ‘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거나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²⁸⁾ 요컨대 ‘멀리’는 고향이나 가족이 있는 곳, 혹은 심적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느끼는 곳을 떠나옴으로써 느끼는 감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이주민의 VFR 호스ティング을 통한 장소감 형성

친구 및 친지 방문(VFR, Visiting Friends and Relatives)은 레저, 비즈니스, 기타 목적과 함께 여행의 주요 동기로 분류된다. VFR의 효용은 경제적 이익, 사회적 자본, 이주민의 특별한 역할 등의 측면에서 조명되어 왔다. 예를 들어 Griffin은 VFR 방문객과 방문객을 호스ティング하는 행위는 사회, 경제적 자본 외에도 환경적, 문화적, 인적, 정치적 자본 등의 확대를 일으켜 해당 지역과 국가에 이익을 불러옴을 밝혔다.²⁹⁾

이주민이 호스ティング하는 VFR은 방문객에게는 낯선 곳의 감정과 익숙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행위임과 동시에 이주민에게는 고향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장치이다.³⁰⁾ VFR 방문객은 목적지의 다른 문화와 언어, 경관에서 낯섬을 느낌과 동시에 호스트와 본국의 언어로 소통하고 이들을 통해 본국의 문화를 접하면서 익숙함을 느낄 수 있다.³¹⁾ 또한 호스트

26) Case, D., *ibid.*

27) Alsop, C. K., “Home and away: self-reflexive auto-/ethnography”, *Forum Qualitative Sozialforschung/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3(3), 2002, pp. 1-14.

28) Ashtar, L., A. Shani and N. Uriely, *ibid.*, pp. 658-672.; Case, D., *ibid.*; Petridou, E., *ibid.*; White, N. R. and P. B. White, *ibid.*

29) Griffin, T., “Visiting friends and relatives tourism and implications for community capital”, *Journal of Policy Research in Tourism, Leisure and Events* 5(3), 2013b, pp. 233-251.

30) Uriely, N., *ibid.*

들은 고향에서 온 지인을 통해 익숙한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며 고향을 떠올리고,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이주 국가의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면서 이주 지역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강화한다.³²⁾ 따라서 방문객과 호스트 모두 서로에게, 나아가서 사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관광정보원으로서 현지인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³³⁾ 현지인 가운데 지역 주민이자 관광객의 특성을 모두 갖는 이주민의 독특한 정보 공유 패턴과 이들이 공유하는 정보의 특성이 함께 조명되고 있다. Edwards et al.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직접 공유하는 관광 정보가 현지 주민들을 통해 구성되기도 함을 밝혔다.³⁴⁾ Choi and Fu는 해외 체류자가 VFR 방문객에게 관광 정보 및 이주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 국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심어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³⁵⁾ Shani and Uriely는 호스팅이 호스트의 일상을 침해할 수 있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일상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음을 밝혔다.³⁶⁾ 이주민들의 암묵지(tacit knowledge) 습득과 공유는 이주 수용국에 다양한 이익을 제공한다. 이들은 성문화된 지식 외에도 직접 겪으며 습득한 정보와 지식들을 자신의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주

31) Shani, A., *ibid.*; Uriely, N., *ibid.*

32) Griffin, T. and T. D. Glover, "The development of social and cultural capitals for immigrant hosts of VFR travellers", *Leisure Sciences* 45(3), 2023, pp. 262-280.

33) Edwards, D., M. Cheng, A. I. K. Wong, J. Zhang and Q. Wu, "Ambassadors of knowledge sharing: co-produced travel information through tourist-local social media exchang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29(2), 2017, pp. 690-708.

34) *ibid.*

35) Choi, S. and X. Fu, "Hosting friends and family as a sojourner in a tourism destination", *Tourism Management* 67, 2018, pp. 47-58.

36) Shani, A. and N. Uriely, "VFR tourism: the host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9(1), 2012, pp. 421-440.

수용국에 대한 내부자의 시각에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으며, 지역 정보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다.³⁷⁾ 이들의 체화된 지식과 비공식적 정보는 이주 수용국의 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³⁸⁾

VFR을 통한 이주민의 호스칭 장소에 대한 정보 획득 패턴은 이주민이 해당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하며, 지역을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Dutt, Ninov and Haas가 조사했던 두바이 거주 해외 주재원들은 호스칭 활동을 위해 관광 명소를 찾아보고 방문객들과 동행하는 행위를 통해 호스칭 국가 내 장소들에 대한 지식을 새로 습득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고 진술했다.³⁹⁾ 또한 Yousuf and Backer는 이주민 호스칭이 VFR 관광 호스칭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고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⁴⁰⁾

또한 이주 후의 호스칭 행위는 이주민에게 강력한 감정적 경험을 하게 해주며, 이주 목적지에 대한 편안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가족이 방문할 경우 정서적 지지, 육아 및 가사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주민 호스트들이 이주 목적지에 적응하는 시간을 벌 수도 있다. 따라서 VFR은 이주민에게 도움을 주며, 이들이 고향과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⁴¹⁾ 호스칭을 통해 형성한 정서적, 사회적 기반과 고향과 연결되어 있는 감정을 통해 이주민은 이주 국가에서 장소감 형성에

37) Choi, S.-h. and H. Jang, "How can marriage immigrants contribute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host country? Implications from the leisure and travel patterns of Vietnamese women in South Korea", *Sustainability* 13(3), 2021, 1039.

38) Choi, S. and X. Fu, *ibid.*

39) Dutt, C., I. Ninov and D. Haas, "The effect of VFR tourism on expatriates' knowledge about the destination", *Tourism and Culture in the Age of Innovation*, 2016, pp. 253-273.

40) Yousuf, M. S. and E. Backer, "Hosting friends versus hosting relatives: is blood thicker than water?",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9(4), 2017, pp. 435-446.

41) Griffin, T. and T. D. Glover, *ibid.*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호스팅 행위를 통한 목적지 이미지 향상과 만족 또한 장소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이주민들이 VFR 관광 호스팅 활동을 통해 목적지 지역을 탐색하고 문화를 습득하며 공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주민들은 이주 지역에 대한 장소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⁴²⁾

III.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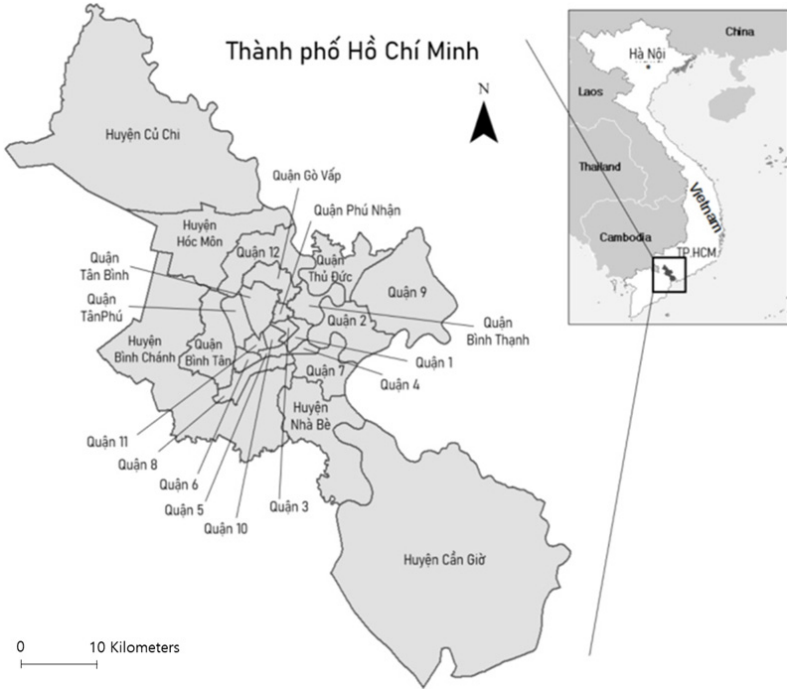
본 연구는 베트남 호찌민에 1년 이상 거주했던 혹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중 VFR 호스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로,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공식 외교 관계 수립 이후 1993년 베트남의 한국 재외동포는 유학생을 포함해 498명이었고, 2019년 기준 172,684명이 베트남에 거주 중이다. 또한, 베트남은 한국인의 이주 증가와 더불어 저비용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 및 티켓 가격 하락으로 신생 관광목적지로 자리매김했다.⁴³⁾ 베트남으로 가는 여행객 증가와 한국인 이주민 증가에 따라 VFR 시장 역시 커졌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호찌민은 수도인 하노이보다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이주한 한인 수도 하노이보다 많다. 이주 역사 역시 호찌민이 하노이보다 길다.⁴⁴⁾ 잠재적 인터뷰 참가자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모집되었다. 인터뷰 참가자당 60분에서 100분 사이의 인터뷰를 온오프라인으로 시행하였다. 모든 인

42) Griffin, T., *ibid.*, pp. 233–251.; Griffin, T., “Immigrant hosts and intra-regional travel”, *Tourism Geographies* 19(1), 2017, pp. 44–62.

4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가별 관광통계」, <https://know.tour.go.kr/> (검색일 2023년 8월 1일).

44) 트영·정서이·전재균, 「한국관광객의 베트남 호찌민에 대한 매력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방문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2권(제2호),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789–801쪽.

타뷰 참가자들은 연구의 목적, 개인정보보호, 자료 저장 시 익명화 등과 관련된 동의 여부를 모두 확인받았으며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림 1〉 연구지역-호찌민

출처 : 연구자 작성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를 위한 질문은 크게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우선적으로 베트남 이주 동기와 베트남과 호찌민에 대한 생각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VFR 호스팅 경험과 호스팅 과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식한 베트남과 호찌민에 대하여 자유롭게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그러한 호스팅 경험이 장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질문함으로써 장소감 형성 과정에 호스팅 경험이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더불어 VFR 호스팅

경험으로 인해 ‘집’과 ‘멀리’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인터뷰 참가자가 여러 장소에 대한 인식과 감정에 대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소감의 변화가 자신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질문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전사되었으며, 추가 정보 수집을 위해 인터뷰 전, 중, 후에 인터뷰 참가자들의 특성 및 상황에 대한 노트를 작성하였다. 전사된 내용은 엑셀로 코딩한 후 유사한 진술을 찾아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문자, 전화 등을 활용하여 2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팀은 전사된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동반하며 인터뷰 참가자의 내러티브 패턴을 탐구하였다.⁴⁵⁾ 내러티브 연구는 개인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개인의 내러티브 과정은 개인 혹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개인의 호스팅 경험을 바탕으로 장소감 형성 과정을 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였다.

인터뷰 참가자의 기본 인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인터뷰 참가자의 기본 인적 사항

순번	성별	연령	베트남 거주 동기	베트남 거주기간	기타 해외 경험
1	여성	27세	아버지 직장, 어학연수, 인턴십	5년 5개월	X
2	여성	27세	어학연수, 인턴십	1년 6개월	X
3	남성	38세	사업	6년	O (네덜란드, 미국)
4	여성	30세	직장	3년	O (미국, 아일랜드)
5	여성	38세	사업	4년	O (호주, 캐나다)
6	여성	30세	아버지 직장, 학교	10년	X
7	남성	31세	어학연수, 직장	8년	X
8	여성	58세	남편 직장	4년	X
9	남성	27세	어학연수, 교환학생	1년 4개월	O (캐나다)

출처 : 연구자 작성

45) Patton, M. Q.,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4th ed.)*, SAGE, 2015.

IV. 연구 결과

1. 호스ティング을 위한 사전 탐색

인터뷰 참가자들은 VFR 호스ティング 준비를 하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공간에 더불어 VFR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혹은 알려주는 호찌민의 다른 공간들을 경험하며 자신이 인식하는 공간이 넓어짐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베트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VFR 관광객의 방문은 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하던 사람의 경우 긍정적 감정이 강화되는 시간이 되었다. 이들이 느끼는 감정 외에도 VFR 관광객의 방문은 이주민들이 베트남에 더욱 오래 살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하며, ‘베트남에서 더욱 잘 살고 있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가자 3, 5, 8은 한국에서 오는 지인들과 같이 다니며 새로운 곳을 알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참가자 3의 경우 “주위 사람들이 계속 놀러 오면서 [아는 곳들이] 아무래도 좀 넓어”진다고 하였다. 참가자 5의 경우 새로운 곳을 알게 되어도 호스ティング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후 수집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갈 수 있는 곳이 확장된다고 하였다. 참가자 8 역시 “처음에 온 손님들은 내가 잘 몰라가지고 타카시마야(호찌민 중심에 있는 대형 백화점 중 하나)도 못 데려갔”으며 “책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음식점”들을 주로 간 데 반해 호스ティング을 여러 번 진행하면서 다양한 공간을 미리 탐방하며 호스ティング할 만한 곳인지 알아보고, 호스ティング을 거듭하며 자신이 아는 곳도 많아지고 호스ティング도 “조금씩 조금씩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VFR 관광 호스ティング을 통한 이주민의 이주 지역 내 인식 공간 확장은 Dutt and Ninov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⁶⁾ VFR 방문객들은 호

46) Dutt, C. S. and I. Ninov, “Expatriates’ learning: the role of VFR tourism”,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31, 2017, pp. 253-264.

스트 역할을 하는 이주민들에게 자신이 이주한 국가 혹은 지역을 탐방할 계기를 만들어주며 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VFR 호스트를 연구했던 기존의 연구들에서 언급되었던 호스트의 이주 지역 지식 함양에 대한 논의⁴⁷⁾를 뒷받침한다. 즉, 본 연구에서 드러난, 해외 이주민이 VFR 호스ティング을 준비하면서 혹은 호스ティング을 통해 이주 지역을 탐방하고 지식을 얻는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할 수 있다.

2. 이주 수용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VFR 호스ティング 활동

호스ティング 행위는 이주민들에게 이주 지역에 대한 지식의 확장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이주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이주 지역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며, 지속적인 거주 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지속적, 주기적으로 눌러 오는 VFR 방문객들은 이주민들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거주 이유로 작용하기도 하며 베트남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고 베트남 거주에 자부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일주일 미만으로 방문하는 대다수의 방문객에 비해 장기적으로 머무는 VFR 방문객을 호스ティング 한 경우나 호스ティング을 계기로 지인이 베트남에 거주하게 된 경우 일상적인 공간임에도 특별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참가자 7은 짧게 눌러 왔던 친구가 자신의 호스ティング을 통해 베트남에 이주하게 된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의 친구는 베트남 여행 이후 베트남에 이주하기 위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인 K-Move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베트남에서 어학연수 및 직장 생활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7은 매일 출근하던 일상의 공간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47) Dutt, C., I. Ninov and D. Haas, *ibid.*; Griffin, T., *ibid.*, pp. 233-251.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는데, 개가 베트남에 처음 놀러 왔다가, 그냥 놀러 왔어요. 놀러 왔다가 저랑 저희 집에서 한 일주일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놀다 갔는데, 그 친구는 베트남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K-Move 이런 거 아시죠? KOTRA에서 하는 거. 그런 거 지원해서 온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한 달 정도는 저희 집에 같이 살면서, 취직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출퇴근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회사는 다른데 공교롭게 같은 건물에 있어가지고. 혼자 출근했던 길이었는데 같이 출근하면서 특별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감정. 내가 맨날 다니는 길임에도. (참가자 7)

한편 베트남 생활의 좁은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끼고 힘들어했던 참가자 2는 새로운 친구의 방문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겼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회의감으로 베트남과 베트남 생활 자체가 싫어져갈 때, 친구의 방문이 부정적 감정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시 베트남 생활에 활기를 찾아 베트남에서의 기억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호찌민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호스칭을 통해 강화되고 있었다. 그는 “긍정적인 친구들이 와가지고 긍정적인 경험을 쌓은 거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한 감정이) 플러스에서 플러스”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베트남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물며 생활을 같이 하는 지인이 생김으로써 베트남 생활이 단조롭다고 느끼고 회의감을 느끼던 이주민들에게 새로운 시선으로 자신의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들은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곳들을 VFR 호스칭을 통해 방문하거나 알게 되어 부정적 감정이 상쇄되거나 긍정적 감정이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참가자 1은 호스칭 준비 과정에서 이주 지역을 탐방함을 통해 “베트남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여행하기 좋은 곳이 있구나, 이렇게 바다가 깨끗한 곳이 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새로 발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가자 5 역시 “베트남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 가면 덥고 짜증날 것 같았는데 막상 가 보니까 괜찮다, 나쁘지

않다”는 감정을 새로 느꼈다고 언급했다. 참가자 4의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식당과 위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식당도 마찬가지로였죠. 워낙 비위생적이다 이러니까. 원래 뭐, 더러운 이야기지만, 길거리에서 쌀국수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데 꼭 설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보고 왔거든요. 느끼고, 근데 그런 걸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관광 도시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더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곳도 많고 그래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참가자 4)

특히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며 베트남 행정과 베트남 자체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참가자 3의 경우 VFR 호스팅을 통해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공간들을 방문하면서 지인들이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는 긍정적인 감정이 형성되었다. 그는 “일단 (베트남을) 싫어함이 베이스에 깔려 있다가 (친구들이 오면) 가끔 좋았다가 다시 (부정적인 감정으로) 내려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즉 해외 이주민의 VFR 호스팅 행위는 이들에게 이주 지역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확장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이주 지역에 대한 애착, 긍정적 감정, 거주 동기, 일상 생활의 특별한 감정이 들게 한다. 또한 부정적이었던 감정을 일시적으로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Allen이 정의했던 개인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통한 장소감과 이정화가 정의했던 경험을 통해 인식하는 환경과 인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장소감의 내용에 부합하며 결과적으로 해외 이주민들은 VFR 호스팅을 통해 장소감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⁴⁸⁾

3. VFR 방문객을 통해 ‘집’과 ‘멀리’의 감정을 느낌

이주민들은 VFR 방문객의 모습을 보면서 ‘집’과 ‘멀리’의 감정을 모두

48) Allen, B., *ibid.*; 이정화, 같은 글.

느낄 수 있었음을 밝혔다. VFR 방문객들을 통해 발견한 ‘집’의 모습은 그리움을 해소해주기도 하지만 이주민들에게 향수를 느끼게 하였다. 지인들의 방문은 이주민들에게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없애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참가자 3과 5의 경우 공통적으로 지인들의 방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물건들을 통해서도 ‘집’을 느끼며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한다고 말했다. 참가자 6의 경우 한국에서 오는 지인들에 대한 반가움과 오랜만에 가족이나 지인들을 마주하는 기쁨의 감정이 더욱 크다고 하였다. 특히 자신은 “베트남에서의 생활이 괜찮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왔다 가는 것에 대한 동요는 없”지만 한국에 대한 생각이 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약간 माम걸이예요.”라고 했던 참가자 4는 ‘집’을 느끼는 요소로 ‘엄마’를 꼽았는데, ‘집’에 가장 가고 싶었던 이유인 엄마의 방문은 한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가 제일 보고 싶고 엄마만 있으면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들도 물론 보고싶긴 하지만 무조건 엄마가 1순위”이기 때문에 “엄마가 계속 오니까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고 하였으며 “엄마 오면 엄마랑 같이 시간 많이 보내고” 좋은 곳을 많이 방문하면서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VFR 방문객의 방문을 통해 느끼는 ‘집’에 대한 감정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상쇄되는 경험은 이주민들이 베트남 생활에 더욱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집’에 대한 경험은 VFR 방문객을 통해 ‘집’을 느낄 수 있다고 했던 Uriely의 주장과 통하는 바가 있다. 나아가 VFR 방문객을 통한 ‘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해외 이주민들의 이주 국가 정착에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장소감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⁴⁹⁾

한편 VFR이 집을 그리워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49) Uriely, N., *ibid.*

참가자 8의 경우에는 남편이 이직함에 따라 같이 베트남에 이주했는데, “내가 한국에서 일을 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또 이게 말이 안되니까 해결이 안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베트남 생활이 힘들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VFR 방문객의 방문은 그에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감정을 증폭시켰으며 ‘집’을 더욱 강하게 그리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멀리’에 대한 감정도 많은 내러티브를 통해 드러났다. 참가자 1, 2, 4, 5는 ‘멀리’의 감정을 VFR 방문객들을 통해서 느끼지만, 이러한 감정이 내가 얼마나 베트남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참가자 2는 베트남에서 예쁘게 꾸미고 차려 입으며 관광하는 “완전 관광객 같은”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발견함으로써 스스로가 ‘멀리’의 상태에 있음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여기가 생활인데 애네(친구들)한테는 여기가 해외여행이구나, 완전 낯선 해외에 가는 곳이구나. 그런 게 새삼스럽게 느껴졌지. 나는 거지처럼 하고 다니는데 애네는 2시간 전부터 머리 셋팅하고, (나는 오히려) 너네 출발하기 10분 전에 깨워 이러니까. (참가자 2)

참가자 5 역시 방문한 한국인들의 모습, 행동들을 통해서 새롭게 한국인들의 특성이나 행동에 대해 인식하여 ‘멀리’의 감정을 느끼며 자신이 이주하여 살고 있음을 자각했다고 언급했다. 참가자 2와 5는 모두 방문객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자신이 하지 않고 있던 행동들을 있었음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이주 국가에서 적응하여 살고 있으며 떠나와 있음을 자각하며 ‘멀리’를 느꼈다.

인터뷰에 참여했던 다른 참가자들 역시 방문객들이 자신의 일상인 공간을 신기해하고 낯설어할 때 한국에서의 모습과 베트남에 있는 자신의 모습 간 차이를 인식한다고 말했다. 참가자 4는 “나도 여기서 한 깔끔 떨고 사는데” 방문한 지인들이 자신보다 더욱 청결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

면서 자신이 얼마나 적응해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봤다고 이야기했다. 참가자 7 역시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방문객의 관점에서 보는 지인의 모습을 보며 “나는 여기서 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자신이 이주해서 살고 있음 자체를 자각했다고 진술했다.

좀 예전에 친구들이 오면 말하는 게 여기가 되게 신기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신기한 게 아닌데 그 친구가 신기하다는 걸 느낀 보면서 저는 이제 ‘한국은 맛다, (안 그렇지)’ 이렇게. 저는 생각이 연결됐던 것 같아요. (참가자 7)

Griffin, Janta, Cohen and Williams, Petridou의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이주민들에게 ‘집’과 ‘멀리’는 고향과의 연결을 확인하면서 느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목적지 국가에 형성되어 있는 이주민 사회, 밀집 공간, 특정 공간 등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다.⁵⁰⁾ 또한 Case와 Alsop은 물리적 혹은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멀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지만⁵¹⁾, 해외 이주민들은 VFR 방문객들의 행동, 모습을 관찰하며 목적지 국가에 일부 동화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목적지 국가에 대한 장소감을 형성할 수 있다.

4. VFR 호스칭의 기능

한편 VFR 호스칭은 베트남 거주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며 이주민들이 원래 계획하던 기간 이상으로 체류를 연장하는 이유로 작용하기도 함이 드러났다. 참가자 3의 경우 “사실 진짜 많이 놀러 오니까 뭔가 베트남을 이제 ‘1년 지났으니까 떠야겠다’ 하는데, 그 뒤로도 계속 비행기

50) Griffin, T., *ibid.*, pp. 487-498.; Janta, H., S. A. Cohen and A. M. Williams, *ibid.*; Petridou, E., *ibid.*

51) Case, D., *ibid.*; Alsop, C. K., *ibid.*

표가 있어”서 베트남에 계속 거주하게 되는 이유로 VFR 호스팅을 꼽았으며, 참가자 6은 “애네[방문객]들이 편하게 해외여행 갈 때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그렇게 놀러 오는 게 이제 어쩔 땐 피곤하고 신경 쓰이고 이렇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베트남에서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더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 여기서 더 자리 잡고 잘 살고 싶다는 생각. ... (중략) ... 그러니까 해외여행이라고 해서 엄청 많이들 생각하잖아. 근데 그냥 베트남은 비행기 표만 끊고 가면 내가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참가자 6)

참가자 8 역시 “긍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지. 누가 왔다 가면 그 경험이 좋았든 나빴든 좋았으면 좋은 대로, 나빴으면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라며 호스팅 경험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음을 언급했다. 또한 가끔은 베트남이나 호찌민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지는 등 베트남과 호찌민에 애착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사람들이 베트남 자꾸 싸다 어쩌다 이야기해서 가끔 기분 나빠. 그리고 패키지 갔다 와 놓고 베트남 나쁘다 그러면 기분 나빠. 바보들 같아. 그냥 몰라서 그렇지 좀 언어만 좀 되고 그러면 좋은 호텔 주중에 오면 얼마나 싸고 좋은데. 레탄퐁(Lê Thánh Tôn, 호찌민 1군에 위치한 일본인 밀집 거주 지역 길) 같은 데 5성급 아니어도 일본 호텔 좋은 데 많잖아. 호찌민 광장 얼마나 잘 해봤는데 요즘에. 지하철 공사 끝나가지고. 그래서 거기 좋아. 그런 광장이 잘 없잖아. (참가자 8)

마지막으로 이주민들의 호스트 활동을 통한 지역 지식 확장은 이주 지역의 장소감 형성에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VFR 방문객들은 이주민들의 현지 생활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며 이주민들의 이주 행위에 자부심을 불

러 일으키고 있었다. 더불어 VFR 방문객들은 이주민들이 이주 국가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감정들은 이주민들에게 이주 국가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심어주며 이는 장소감의 형성으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본고는 이주민들이 VFR 방문객들을 호스팅하면서 어떻게 장소감이 형성되었는지, VFR 방문객을 통해 느낀 ‘집’과 ‘멀리’는 어떠한지 이를 통해 어떻게 장소감이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느낀 장소감과 VFR 호스팅 경험을 심도 있게 보기 위해 질적연구 방식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은 지인들을 호스팅하기 위해 미리 호스팅 지역을 탐방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둘째, 지인들의 방문은 이들의 베트남 생활에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 셋째, 호스팅은 호찌민에 대한 긍정적 기억의 강화에 기여한다. 넷째, 이주민들은 VFR 방문객의 방문을 통해 ‘집’과 ‘멀리’를 동시에 느낀다. 즉, VFR은 그들에게 이주 지역을 낯설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이 이미 이 곳에 적응해서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과 인식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주민 장소감 형성에 기여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이주민들의 VFR 호스팅을 통한 장소감 형성 과정은 이주민을 적응과 정착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개인으로서 탐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VFR 방문을 경제적 측면, 혹은 VFR 방문객에 집중하지 않고 VFR의 호스트로서 이주민을 조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주와 이주민 연구에서 도구로만 사용되었던 장소감의 형성 과정을 탐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내에서 조명되지 않고 있던 VFR 호스트로서 이주민에 초점을 맞춰 연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한 VFR 방문객이 아닌 VFR의 호스팅 주체로서 이주민에 집중하여 호스트로서 역할 수행이 이들의 이주 후 정착, 이주 국가 내 장소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들이 이주 국가에 어떻게 적응하고 사회에 녹아들었는가가 아닌 이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형성한 장소감과 이주 국가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탐구하였다. 이주민들은 목적지 국가 사회에 융화되는 것 외에도 목적지 생활 자체가 편안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좋을 때, 문화 충격이 크지 않고 비교적 문화가 익숙할 때 이주 국가에서 큰 갈등 없이 살아간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주 국가에서 고향의 것들과 문화를 쉽게 접하거나 고향에서 방문하는 지인들은 이들의 이주 국가 생활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방문하는 지인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주해 살고 있음을 자각하고 목적지 국가에서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국내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한인을 연구한 역사는 길지 않다. 또한 베트남을 연구 지역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베트남 역사, 베트남 내 자원과 같은 주제가 많으며, 그 방법 역시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룬다. 특히 VFR 연구에서 동남아시아와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VFR 연구 지역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연구 주제의 확장과 이주민 개인의 내러티브에 집중하여 통계적 수치가 아닌 개인이 인식한 현실을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의 다양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적 다양한 인터뷰 참가자를 모집하고자 하였지만 연령과 거주 기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20년 이상 거주한 한인의 경우, 혹은 40대 이상의 사업 및 기타 목적을 위한 이주민의 경우 VFR 호스팅 패턴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

하다. 또한 코로나19가 회복되기 전에 인터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터뷰 참가자들의 내러티브가 다소 경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현지에서의 참여관찰을 병행하며 보다 풍부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코로나19 회복 후 한인 사회와 한인들의 생활에 대해 보다 총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VFR과 이에 대한 한인들의 경험 및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들의 장소감과 VFR을 통해 형성된 장소감이 베트남 혹은 호찌민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호찌민은 한인 커뮤니티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호찌민은 이미 발전된 관광도시이며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관광지로서 방문객들에게 익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의 VFR 방문객 호스ティング이 비교적 수월했을 수 있고 적응과 정착이 수월했을 수 있다. 이주민들의 장소감 형성은 같은 베트남이더라도 하노이, 하이퐁 등의 북부 도시와 한국인이 많이 살지 않는 도시들에서는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나 유럽, 미국 등 다른 대륙이나 국가에 거주하는 한인에게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다른 배경을 가진 한인 이주민들에 대한 연구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베트남에 거주 중인 다른 국가 이주민들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출신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VFR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 출신 이주민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VFR 호스ティング 및 그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이주지로서 베트남에서 이주민들의 장소감 형성과 여기에서 VFR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더 폭넓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정·이영민, 「초국가적 경제공간으로서 다민족 비즈니스의 형성과 이주 자집단의 사회공간적 관계」, 『문화역사지리』 제29권(제2호), 한국 문화역사지리학회, 2017.
- 이영민·이은하·이화용, 「서울시 중국인 이주자 집단의 거주지 특성과 장소화 연구 -조선족과 한족(漢族)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7권(제2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14.
- 이용균, 「이주자의 장소 점유와 주변화 담론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6권(제2호), 한국경제지리학회, 2013.
- 이정화, 「수용자 문화가 장소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구 지리환경교육)』 제13권(제1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5.
- 트영·정서이·전재균, 「한국관광객의 베트남 호치민에 대한 매력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방문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2권(제2호),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 Adams, J. D., "Theorizing a sense of place in a transnational community",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s* 23(3), 2013.
- Ahmed, S., "Home and away: narratives of migration and estran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2(3), 1999.
- Allen, B., "Regional studies in American folklore scholarship", *Sense of place: American regional cultures*, 1990.
- Alsop, C. K., "Home and away: self-reflexive auto-/ethnography", *Forum Qualitative Sozialforschung/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3(3), 2002.
- Ashtar, L., A. Shani and N. Uriely, "Blending 'home' and 'away': young Israeli migrants as VFR travelers", *Tourism Geographies* 19(4),

2016.

- Case, D., “Contributions of journeys away to the definition of home: an empirical study of a dialectical proces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6(1), 1996.
- Choi, S.-h. and H. Jang, “How can marriage immigrants contribute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host country? Implications from the leisure and travel patterns of Vietnamese women in South Korea”, *Sustainability* 13(3), 2021.
- Choi, S. and X. Fu, “Hosting friends and family as a sojourner in a tourism destination”, *Tourism Management* 67, 2018.
- Dutt, C., I. Ninov and D. Haas, “The effect of VFR tourism on expatriates’ knowledge about the destination”, *Tourism and Culture in the Age of Innovation*, 2016.
- Dutt, C. S. and I. Ninov, “Expatriates’ learning: the role of VFR tourism”,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31, 2017.
- Edwards, D., M. Cheng, A. I. K. Wong, J. Zhang and Q. Wu, “Ambassadors of knowledge sharing: co-produced travel information through tourist-local social media exchang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29(2), 2017.
- Gholamhosseini, R., D. Pojani, I. Mateo Babiano, L. Johnson and J. Minnery, “The place of public space in the lives of Middle Eastern women migrants in Australia”, *Journal of Urban Design* 24(2), 2019.
- Gregory, D., R. Johnston, G. Pratt, M. Watts and S. Whatmore,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John Wiley & Sons, 2011.
- Griffin, T., “Research note: a content analysis of articles on visiting friends and relatives tourism, 1990–2010”, *Journal of Hospitality Marketing & Management* 22(7), 2013a.

- _____, “Visiting friends and relatives tourism and implications for community capital”, *Journal of Policy Research in Tourism, Leisure and Events* 5(3), 2013b.
- _____, “A paradigmatic discussion for the study of immigrant hosts”, *Current Issues in Tourism* 17(6), 2014.
- _____, “Immigrant hosts and intra-regional travel”, *Tourism Geographies* 19(1), 2017.
- Griffin, T. and T. D. Glover, “The development of social and cultural capitals for immigrant hosts of VFR travellers”, *Leisure Sciences* 45(3), 2023.
- Janta, H., S. A. Cohen and A. M. Williams, “Rethinking visiting friends and Relatives mobilities”, *Population, Space and Place* 21(7), 2015.
- Mazumdar, S., S. Mazumdar, F. Docuyanan and C. M. McLaughlin, “Creating a sense of place: the Vietnamese-Americans and Little Saig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0(4), 2000.
- Patton, M. Q.,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4th ed.)*, SAGE, 2015.
- Petridou, E., “The taste of home”, *Home possessions*, Berg, 2001.
- Relph, E.,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1976.
- _____, “Geographical experiences and being-in-the-world: the phenomenological origins of geography”, *Dwelling, place and environment*, Springer, 1985.
- Rother, N., “Better integrated due to a German partner?: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the integration of foreigners in intra-and inter-ethnic partnerships in Germany”, *OBETS.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N. 1 (junio 2008), 2008.
- Shani, A., “The VFR experience: ‘home’ away from home?”, *Current Issues*

- in Tourism* 16(1), 2013.
- Shani, A. and N. Uriely, “VFR tourism: the host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9(1), 2012.
- Steele, F., *The sense of place*, CBI Publishing Company, 1981.
- Tuan, Y. F., “Place: an experiential perspective”, *Geographical Review* 165(2), 1975.
- _____,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구동회·심승희,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 Uriely, N., ““Home” and “away” in VFR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7(3), 2010.
- White, N. R. and P. B. White, “Home and away: tourists in a connected world”, *Annals of Tourism Research* 34(1), 2007.
- Yousuf, M. S. and E. Backer, “Hosting friends versus hosting relatives: is blood thicker than water?”,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9(4), 201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가별 관광통계」, <https://know.tour.go.kr/>
- 행정안전부,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

〈ABSTRACT〉

**Sense of Place Formation through Hosting of
Friends and Relatives
– The Case of Korean Migrants in Vietnam –**

Jang, Haeri · Lee, Joonyoung · Choi, Suh-hee

In the context of visiting friends and relatives (VFR), this paper explores how migrants' hosting of friends and relatives affects the formation of a sense of place in the receiving countr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bout the sense of place of migrants and VFR hosting, this study integrates these two research streams. Korean migrants in Ho Chi Minh City, Vietnam, are the study subjects.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explore the formation of the sense of place of the migrants through VFR hosting. Nar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interpret how the interviewees constructed their experiences that led them to form a sense of place. The results show that the formation of a sense of place is importantly influenced by their experiences in Vietnam that enable them to feel a sense of 'home' there. The hosting processes including preparing for hosting and spending time with the guests in Vietnam enable the hosts to build a sense of both 'home' and 'away' through experiencing new about Vietnam and rediscovering their everyday spac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iscovers the formation processes of a sense of place through the lens of VFR and in the context of Vietnam.

Key Words : Vietnam, Ho Chi Minh City, Migrants, Visiting Friends and Relatives (VFR), Hosting, Sense of Place, 'home' and 'away'